

2016년 12월 10일,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, 이현정 조사.
 윤성인(여, 1930년생, 제주시 이도1동)

[조사자] 도깨비 모셔난 집.

[제보자] 도깨비?

[조사자] 도깨비.

[제보자] 아, 옛날에는 저 도깨비가, 도깨빈지 도체빈지, 모신 집에는 뭘 음식을 허면, 문
 저 그 도깨비부텨 옷봉으로 우리 제사 모시듯이, 모셔 뒀 가야 돼여.

[조사자] 그러면 뭘 아침 먹거나, 점심 먹거나.

[제보자] 말고, 그게 아니고, 그냥 무신 거 어딴 드르엘 가나, 뭘 헤영 갈 때는 그 우로
 문저 행 맥여 뒀 가야 되는다. 그거 아니 헤 뒀.

[조사자] 그 모시는 집에서?

[제보자] 응, 옛날은 조도 다 물로 막 불렸네. 거난, 밧디 가는다, 점심을 출령 가는다, 그
 도깨비를 안 주고 그냥, 그냥, 거 밧디 갈 것만 막 헤영 밧디 갖어.

[조사자] 정신이 엇엇구나 그 사람이.

[제보자] 그렇지. 오랜만이 거 다 출려 가젠 허난게, 밧 불리는 사람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헨
 간다, 밧데 가난 생각이 난. 완 보난, 비차락 도체비는 비차락허고, 얼레빗 그거,

[조사자] 얼레빗.

[제보자] 응 머리 밧는 옛날엔 얼레기 밧이라고 제주도에는 커났어. 그런 밧허곡, 뭘 헤영
 그걸로 뭘 부찔덴 불이, 네영, 거난, 막- 집꺼지 막 불 부찌레 돌아댕겼이난.

[조사자] 아, 도깨비가.

[제보자] 도깨비가.

[조사자] 무사.

[제보자] 막 수정헤연이.

[조사자] 잘못헛고렌?

[제보자] 정 가던, 응, 정 가던 그거 다 덜언 다 맥이고, 다. 헤 뒀, 가난. 그 집이 불 안
 난 살앗젠 허더라. 옛날에는 도깨비가 그렇게 아까(웃음) 그 옷 입은 도깨비?찌
 사람이라. 사람?찌 헛덴 허더라. 게난 그, 우리, 좀 큰 때꺼지도, 그런 거 모시

는 집이는, 잘 돼여, 부자로.

[조사자] 부자.

[제보자] 응, 도깨비 모시는 집이는.

[조사자] 막 잘 돼?

[제보자] 응, 막 잘 돼당 어땡허단 좀 거실어지믄.

[조사자] 도깨비랑 거실어지믄?

[제보자] 응, 그 도깨비허고 거시, 거실어지면 삽시에 망헤여. 그냥.

[조사자] 그믄 보통 도깨비 모시는 집덜은 뭐해? 뭐헿 먹고 살아마씨?

[제보자] 농사를 짓든 뿔허든 도깨비두 강, 어디 강 모셔오는 거지. 그 사럼덜토 모셔온 덴, 강 모셔당 노면은 그게 막 부자로 돼영 잇당. 어땡 헿 거실어지믄 그냥 삽시 로 망헤. 도깨비가 그만큼 무서운 거랏저. 옛날에는.

[조사자] 음.

[제보자] 저렇게 영리도 헿고, 아까 거기?찌, 옛날엔. 겐디 지금은, 허단 중간에는 도깨빈 가 도체빈가가(웃음) 불로, 우리 어린 때는, 불이 번쩍, 번쩍, 번쩍, 번쩍, 번쩍 막 놀아댕겨. 불이. 저 지금 뿔고 그것골이 경 허는디 불이 크고, 막 불이 덩어리로.

[조사자] 날라댕겨?

[제보자] 응, 막 왔다갔다 헤낫어. 겐디 우리 어린 때만 헤도, 그게 도깨빚불이랏어, 겡 헿디.

[조사자] 근데, 도깨빚불은.

[제보자] 우린 그건 뿔거든?

[조사자] 다른 데서는 비 막 오젠 헤민.

[제보자] 그렇지. 비 온 날에나, 척척한 날엔 더.

[조사자] 그런 날에만 보인데.

[제보자] 아, 그런 날도 보곡, 경 안 현 날도. 옛날은 많이 잇엇어. 겐디, 이젠 이게 막 총 도 쏘우고, 사럼도 많고, 인구도 많고, 뿔허다 보니깐.

그게 엇어진 거지. 귀신이 엇어진 거지. 지금은, 옛날에는 밤질만 걸어도, 그런 그, 우리 어무니 본, 헿게비가 나왕, 뿔허곡. 막 우는 소리 나곡 막 헌덴.

[조사자] 우는 소리.

[제보자] 그렇지.

- 핵심어 : 도깨비 조상, 도깨빚불, 웃봉, 비차락, 열레기빚, 불, 비, 척척한 날, 밤질, 우는 소리, 헿게비